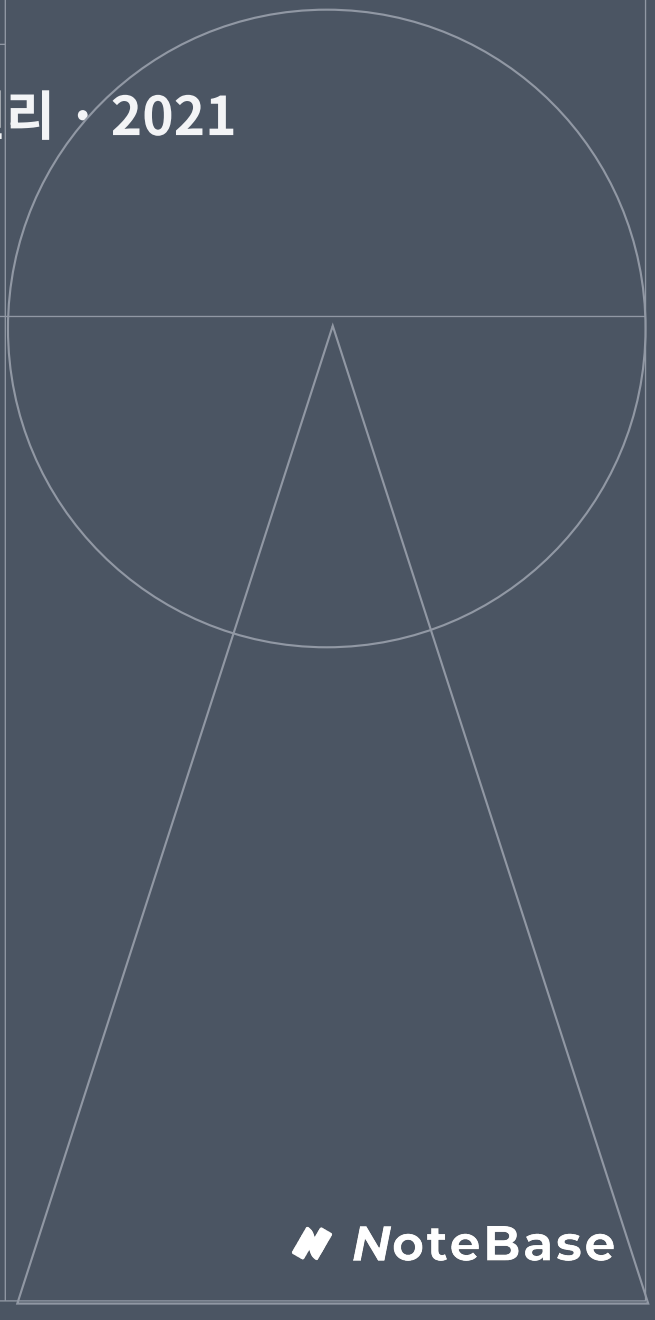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1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1

문 1. 회계정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체로서 회계정보의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

② 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정보는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을 구별하는 데 이용되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③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④ 외부감사는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경영자는 외부에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인 동시에, 경영 의사결정에 그 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정보이용자이자 수요자**이다. 따라서 '공급자이므로 수요자는 아니다'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경영자는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지만, 기업의 계획 수립·통제·성과 평가를 위해 회계정보를 직접 이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품별 원가정보를 보고 생산량이나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회계정보의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이며, '수요자는 아니다'를 '내부 정보이용자인 수요자이기도 하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보여 주므로 투자자와 채권자가 기업의 수익성이나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은 그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줄 기업을 선택한다. 이처럼 회계정보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③ O: 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르는 공통 기준이다. 외부감사인은 **기업과 독립된 입장**에서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회계기준에 따른 작성과 외부감사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이며,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이러한 감사를 받는다.

④ O: 공인회계사는 회계와 감사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감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1,200,000에 취득(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00)하였다. 동 기계장치를 연수합계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때, 20×4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은 없으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① ₩50,000

② ₩150,000

③ ₩180,000

④ ₩25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20×4년은 **사용 3차 연도와 4차 연도가 각각 6개월씩** 포함되므로 두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나누어 계산한다. 상반기 100,000원과 하반기 50,000원을 합한 150,000원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이다.

계산 과정

감가상각대상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손상차손이 없으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1,200,000 − 200,000 = 1,000,000원이다.

연수합계법과 적용 기간: 내용연수 4년의 연수합계는 4 + 3 + 2 + 1 = 10이다. 감가상각대상금액에 적용하는 연간 상각률은 사용 1차 연도부터 차례로 $\frac{4}{10}$, $\frac{3}{10}$, $\frac{2}{10}$, $\frac{1}{10}$이다. 20×1년 7월 1일 취득했으므로 **매년 7월 1일에 사용 연차가 바뀐다**. 따라서 20×4년 1~6월은 사용 3차 연도에, 7~12월은 사용 4차 연도에 속한다.

20×4년 1~6월: 사용 3차 연도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 \times \frac{2}{10} = 200{,}000$원이다. 이는 12개월분이므로 **상반기 6개월분만** 반영하면 $200{,}000 \times \frac{6}{12} = 100{,}000$원이다.

20×4년 7~12월: 사용 4차 연도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1{,}000{,}000 \times \frac{1}{10} = 100{,}000$원이다. 하반기 6개월분은 $100{,}000 \times \frac{6}{12} = 50{,}000$원이다.

20×4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감가상각비는 100,000 + 50,000 = 15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모든 매출이 외상으로 발생하는 회사이다. 당기 총매출액은 ₩800,000이며, 매출채권으로부터 회수한 현금유입액은 ₩600,000이다. 다음의 당기 매출채권 관련 자료를 사용하여 (주)한국이 인식할 당기 손상차손(대손상각비)은?

	기초	기말
매출채권	₩500,000	₩450,000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50,000	₩50,000

① ₩250,000

② ₩350,000

③ ₩450,000

④ ₩55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채권 증감에서 구한 당기 제각액은 250,000원이다. **기초·기말 손실충당금이 같으므로** 제각으로 줄어든 충당금만큼 보충해야 하여 당기 손상차손도 25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매출채권 제각액 계산: 모든 매출이 외상이므로 당기 매출액 800,000원은 전액 매출채권을 증가시키고, 현금 회수액 600,000원은 매출채권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제각 전 매출채권은 500,000 + 800,000 - 600,000 = 700,000원이다. 표의 기말 매출채권은 450,000원이므로 차액인 700,000 - 450,000 = 250,000원이 당기에 회수 불가능하여 장부에서 제거한 **매출채권 제각액**이다.

2. 손상차손 계산: 매출채권을 제각할 때에는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을 함께 줄인다. 기초 손실충당금 50,000원에서 제각액 250,000원을 차감하면 충당금은 200,000원의 차변잔액이 된다. 기말에 표와 같이 충당금 50,000원의 대변잔액을 남기려면 **부족액을 메우고 기말 충당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200,000 + 50,000 = 250,000원이다.

당기 손상차손은 25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는 사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발행시 사채발행비가 발생한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사채발행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보다 높다.

② 사채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사채를 할인발행하게 된다.

③ 사채를 할증발행한 경우 사채의 장부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④ 사채의 할인발행과 할증발행의 경우 사채발행차금상각액이 모두 점차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상각액이 모두 점차 감소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할인발행과 할증발행 모두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이 점차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매기 같은 현금이자를 지급하는 사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이자비용은 기초 장부금액에 발행 시 결정된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현금이자는 액면금액과 액면이자율에 따라 정해지며, 이자비용과 현금이자의 차이가 사채발행차금 상각액이다.

① O: 사채발행비는 사채 발행으로 실제 조달한 순금액을 줄인다. 앞으로 지급할 이자와 원금이 같더라도 처음 조달한 금액이 적어지므로 **실질적인 자금조달 원가인 유효이자율은 높아진다**.

② O: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으면 약정된 현금이자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액면금액보다 낮은 가격을 지급하며, 사채는 **액면금액보다 낮게 할인발행**된다.

③ O: 할증발행한 사채는 처음 장부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급하는 현금이자보다 적으므로, 그 차이인 할증발행차금 상각액만큼 **사채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장부금액은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액면금액에 접근한다.

④ X: 할인발행한 사채는 상각할수록 장부금액이 증가하여 이자비용도 증가한다. 현금이자는 일정하므로 이자비용에서 현금이자를 뺀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점차 커진다. 할증발행한 사채는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이 감소하므로, 일정한 현금이자에서 이자비용을 뺀 할증발행차금 상각액 역시 점차 커진다. 따라서 '모두 점차 감소한다'를 **'모두 점차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년 초에 토지를 새로 구입한 후, 토지 위에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 취득 후 토지 위에 있는 창고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의 취득 후 바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토지 취득 및 신축 공사와 관련된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사옥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 토지의 구입가격 ₩20,000
◯ 토지의 구입에 소요된 부대비용 ₩1,300
◯ 토지 위의 창고 철거비용 ₩900
◯ 새로운 사옥의 설계비 ₩2,000
◯ 기초공사를 위한 땅 굴착비용 ₩500
◯ 건설자재 구입비용 ₩4,000
◯ 건설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150
◯ 건설 근로자 인건비 ₩1,700

① ₩8,200
② ₩8,350
③ ₩9,100
④ ₩9,25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건설중인자산에는 **사옥 건설에 직접 드는 원가와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합산한다. 토지 구입가격·취득 부대비용·기존 창고 철거비용은 토지원가로 구분하므로, 건설중인자산은 8,35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건설중인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 등의 건설에 투입된 원가를 모아 두는 자산이다. 20×1년 12월 31일에도 사옥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옥 건설에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합산하되 토지 취득원가는 제외한다.

토지원가 구분: 토지 구입가격 20,000원과 취득 부대비용 1,300원은 토지원가이다. 새 사옥을 짓기 위해 토지 취득 후 기존 창고를 철거했으므로, 철거비용 900원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원가**에 포함한다. 이 세 항목의 합계 22,200원은 토지원가이며 건설중인자산에 넣지 않는다.

사옥 건설원가 계산: 설계비 2,000원, 기초공사를 위한 땅 굴착비용 500원, 건설자재 구입비용 4,000원, 건설근로자 인건비 1,700원은 모두 사옥 건설에 직접 드는 원가이다. 특히 굴착비용은 **사옥의 기초공사를 위한 지출**이므로 토지원가와 구분한다. 이 금액들을 합하면 2,000 + 500 + 4,000 + 1,700 = 8,200원이다.

차입금 이자 반영: 사옥 건설에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150원은 **건설기간 중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차입원가**이다. 따라서 앞서 구한 건설원가 8,200원에 더한다.

건설중인자산 = 8,200 + 150 = 8,35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주)한국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를 20×1년 초 ₩1,000,000에 취득하였다. 20×1년 말 재평가 결과 토지의 공정가치는 ₩900,000이었고, 20×2년 말 재평가 결과 토지의 공정가치가 ₩1,050,000인 경우, 20×2년 말 당기손익에 포함될 자산재평가이익과 자본항목에 표시될 재평가잉여금은?

① 자산재평가이익: ₩0, 재평가잉여금: ₩50,000

② 자산재평가이익: ₩50,000, 재평가잉여금: ₩100,000

③ 자산재평가이익: ₩100,000, 재평가잉여금: ₩50,000

④ 자산재평가이익: ₩150,000, 재평가잉여금: ₩1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 중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손실을 회복하는 부분**은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승액 150,000원 중 100,000원은 자산재평가이익으로, 나머지 50,000원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20×1년 말 재평가손실: 취득원가 1,000,000원에서 공정가치 9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재평가손실은 1,000,000 − 900,000 = 100,000원이다. 기존 재평가잉여금이 없으므로 이 손실 전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토지의 장부금액은 900,000원이 된다.

20×2년 말 재평가 증가액: 토지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900,000원이다. 이를 공정가치 1,050,000원으로 올리면서 인식할 총증가액은 1,050,000 − 900,000 = 150,000원이다.

당기손익에 포함할 자산재평가이익: 재평가 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같은 자산의 과거 재평가손실을 회복하는 범위**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증가액 150,000원 중 과거 손실 100,000원을 회복하는 금액이 자산재평가이익이다. 이 부분은 토지의 장부금액이 900,000원에서 원래 취득원가인 1,000,000원까지 회복된 데 해당한다.

자본에 표시할 재평가잉여금: 과거 손실을 회복하고 남은 150,000 − 100,000 = 50,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한다. 기존 잉여금이 없으므로 20×2년 말 재평가잉여금 잔액도 50,000원이다.

자산재평가이익 100,000원과 재평가잉여금 50,000원의 조합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7. 다음의 분개장 기록 내역 중 시산표 작성을 통해 항상 자동으로 발견되는 오류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계장치를 ₩800,000에 처분하고, '(차)현금 ₩800,000 / (대)기계장치 ₩80,000'으로 분개하였다.
ㄴ. 건물을 ₩600,000에 처분하고, '(차)현금 ₩600,000 / (대)토지 ₩600,000'으로 분개하였다.
ㄷ. 토지를 ₩300,000에 처분하고, '(차)토지 ₩300,000 / (대)현금 ₩300,000'으로 분개하였다.
ㄹ. 신입사원과 월 ₩500,000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차)급여 ₩500,000 / (대)미지급비용 ₩500,000'으로 분개하였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ㄱ은 차변 ₩800,000과 대변 ₩80,000 사이에 ₩720,000의 차이가 생겨 오류가 드러난다. 양쪽 금액이 같으면 계정이나 거래 내용이 잘못되어도 합계 비교만으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시산표는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 금액을 모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표이다.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분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한다. 따라서 금액의 불일치는 드러나지만, 합계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계정 선택이나 거래 기록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ㄱ. 자동 발견: 차변 현금은 ₩800,000인데 대변 기계장치는 ₩80,000이므로, 차변이 ₩720,000 더 많다. 이 분개를 전기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불일치**하여 시산표에서 오류가 드러난다. 처분 거래의 분개도 차변과 대변의 총액이 일치하도록 기록해야 한다.

ㄴ. 자동 발견 불가: 건물을 처분했으므로 **토지가 아닌 건물의 감소**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토지 계정에도 대변 ₩600,000을 기록했으므로 차변 현금 ₩600,000과 금액이 같다. 계정과목의 오류는 시산표의 합계 일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ㄷ. 자동 발견 불가: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을 받으면 현금이 증가하고 토지가 감소한다. 따라서 자산 증가인 현금은 차변에, 자산 감소인 토지는 대변에 기록해야 한다. 제시된 분개는 **차변과 대변을 서로 반대로 기록**했지만, 양쪽에 각각 ₩300,000이 기록되어 시산표의 합계는 일치한다.

ㄹ. 자동 발견 불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급여 비용이나 미지급비용을 인식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한 뒤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식하며,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미지급비용을 기록한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제시된 분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분개도 차변 급여 ₩500,000과 대변 미지급비용 ₩500,000이 같아 시산표에서 자동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시산표 작성으로 자동 발견되는 오류는 ㄱ뿐이므로 ①의 구성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주)한국의 수정후시산표상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본금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기초이익잉여금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매출	₩120,000	현금	₩130,000
매출원가	₩100,000	재고자산	₩200,000
급여	₩50,000	매입채무	₩170,000
선급비용	₩70,000	미지급금	₩50,000
미지급비용	₩80,000	미수수익	₩50,000
자본금	₩40,000	기초이익잉여금	?

① ₩40,000

② ₩110,000

③ ₩140,000

④ ₩3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수정후시산표에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한다**. 차변 합계 600,000원에서 기초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대변 합계 460,000원을 빼면 기초이익잉여금은 14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정후시산표는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하되 수익과 비용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 전의 시산표이다. 따라서 **당기 수익·비용과 기초이익잉여금을 별도로** 두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같아지도록 기초이익잉여금을 구한다.

1. 차변 합계: 자산과 비용의 잔액을 합한다. 자산은 현금 130,000원, 재고자산 200,000원, 선급비용 70,000원, 미수수익 50,000원으로 총 450,000원이다. 선급비용은 미리 지급한 금액 중 아직 비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미수수익은 이미 발생한 수익 중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모두 자산이다. 비용은 매출원가 100,000원과 급여 50,000원으로 총 150,000원이다. 차변 합계는 450,000 + 150,000 = 600,000원이다.

2. 기초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대변 합계: 부채·수익·자본금을 합한다. 부채는 매입채무 170,000원, 미지급금 50,000원, 미지급비용 80,000원으로 총 300,000원이다. 미지급비용은 발생한 비용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의무이므로 **비용이 아니라 부채 계정**으로 분류한다. 수익인 매출 120,000원과 자본금 40,000원을 더하면 300,000 + 120,000 + 40,000 = 460,000원이다.

3. 기초이익잉여금: 차변 합계 600,000원보다 현재까지 계산한 대변 합계 460,000원이 140,000원 적다. 이 차이를 채우는 대변 잔액이 기초이익잉여금이므로, 600,000 − 460,000 = 140,000원이다.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의 재고자산과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홍수로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 20×1년 1월 1일 기초상품재고액은 ₩250,000이다.
◯ 20×1년 7월 31일 홍수가 발생하여 ₩150,000의 상품만 남고 모두 소실되었다.
◯ 20×1년 7월 31일까지 당기상품매입액은 ₩1,300,000이다.
◯ 20×1년 7월 31일까지 당기매출액은 ₩1,200,000이다.
◯ (주)한국의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① ₩ 200,000
② ₩ 260,000
③ ₩ 440,000
④ ₩ 59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판매된 상품의 원가는 **매출액의 80%**이다. 이를 차감한 홍수 직전 상품재고액 590,000원에서 남은 상품 150,000원을 빼면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44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판매가능상품원가: 기초상품재고액과 20×1년 7월 31일까지의 상품매입액을 합하면, 해당 기간에 판매하거나 보유할 수 있었던 상품의 총원가가 된다.
250,000 + 1,300,000 = 1,550,000원

2. 매출원가 추정: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이다. 매출액은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의 합이므로, 매출총이익률 20%를 적용하면 매출원가율은 100% − 20% = 80%이다. 따라서 7월 31일까지 판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다음과 같다.
1,200,000 × 80% = 960,000원

3. 홍수 직전 상품재고액: 판매가능상품원가에서 이미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빼면 **홍수가 없었다면 남아 있어야 할 상품의 원가**가 된다.
1,550,000 − 960,000 = 590,000원

4.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 홍수 직전 재고 590,000원에는 소실된 상품과 홍수 후 남은 상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남은 상품 150,000원을 차감**한다.
590,000 − 150,000 = 440,000원
소실된 상품의 추정원가는 44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0. 자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누적적 적립금의 성격을 갖는 계정이다.

② 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③ 자본잉여금은 납입된 자본 중에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일부는 당기손익으로의 재분류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자본조정은 누적적 적립금이 아니라 **자본을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조정 항목**이다. 자기주식처럼 차감하는 항목뿐 아니라 주식선택권처럼 가산하는 항목도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자본조정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바로 처리하기 어려운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누적적 적립금이 아니라 자본의 가감 조정 성격**을 가진다.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지만 주식선택권은 자본에 가산하므로, 자본조정이 모두 차감 항목이라는 설명도 잘못되었다.

② O: 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발행자는 그 청구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발행자가 **현금 등의 지급을 회피할 수 없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식이라는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③ O: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잉여금으로, 영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이익이 쌓인 이익잉여금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8,000원에 발행하면 5,000원은 자본금으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3,000원**은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④ O: 재분류조정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했던 금액을 이후 당기손익으로 옮기는 것이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본 내에서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한 지분상품 투자의 누적 평가손익은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대체는 자본 내부의 항목 간 이동이므로 당기손익과 자본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NoteBase

문 1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보고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② 보고기업은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③ 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와 일치한다.

④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고기업은 **법적 실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의 실체 전체뿐 아니라 그 일부나 둘 이상의 실체도 재무보고의 범위가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따라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O: 보고기업은 하나의 실체, 한 실체의 일부 또는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다. 재무보고의 대상 범위를 반드시 하나의 회사 전체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③ X: 보고기업은 재무제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 범위이고, 법적 실체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실체이다. 두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 법적 실체의 일부만 보고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법적 실체를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묶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 실체와 일치한다'를 '법적 실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지배기업은 다른 기업인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기업이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되면, 이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보아 작성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한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를 지배할 때 A사와 B사를 함께 하나의 보고기업으로 보고 재무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NoteBase

문 12. 다음과 같은 현금 원장의 내용에 기반하여 추정한 날짜별 거래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

1/15	용역수익	70,000	1/2	소모품	50,000
1/18	차입금	100,000	1/5	비품	75,000
			1/31	미지급급여	20,000

① 1월 2일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현금 ₩50,000을 지급하였다.

② 1월 15일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70,000을 수취하였다.

③ 1월 18일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현금 ₩100,000을 지급하였다.

④ 1월 31일 미지급급여 ₩2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1월 18일의 100,000원은 현금 원장의 **차변에 기록되어 현금이 증가**한 거래이다.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현금 100,000원을 차입**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현금은 자산이므로 원장의 왼쪽인 차변에 증가를, 오른쪽인 대변에 감소를 기록한다. 현금 원장에 적힌 계정명은 그 현금 거래의 상대계정이며, 분개에서는 현금과 반대쪽에 기록된다.

① O: 1월 2일에는 현금 원장의 대변에 상대계정 '소모품'과 5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50,000원이 감소**한 거래로, 차변에 소모품 50,000원, 대변에 현금 50,000원을 기록한다.

② O: 1월 15일에는 현금 원장의 차변에 상대계정 '용역수익'과 7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용역을 제공하여 **현금과 용역수익이 함께 증가**한 거래로, 차변에 현금 70,000원, 대변에 용역수익 70,000원을 기록한다.

③ X: 1월 18일에는 현금 원장의 차변에 상대계정 '차입금'과 10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차변에 현금 100,000원, 대변에 차입금 100,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돈을 빌려 현금과 차입금이 함께 증가**한 거래이다. 차입금 상환이라면 차변에 차입금, 대변에 현금을 기록하므로 현금 원장의 대변에 나타나야 한다.

④ O: 1월 31일에는 현금 원장의 대변에 상대계정 '미지급급여'와 2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미지급급여는 이미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급여에 대한 부채이다. 이를 지급하면 **미지급급여와 현금이 함께 감소**하므로 차변에 미지급급여 20,000원, 대변에 현금 20,000원을 기록한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20×1년 (주)한국의 재무제표와 거래 자료 중 일부이다. 20×1년 손익계산서상 당기 매출액은?

기초매입채무	₩4,000
기말매입채무	₩6,000
현금지급에 의한 매입채무 감소액	₩17,500
기초상품재고	₩6,000
기말상품재고	₩5,500
매출총이익	₩5,000

① ₩24,000

② ₩25,000

③ ₩26,000

④ ₩27,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입채무가 증가한 2,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매입대금이므로, **현금지급액에 더해** 당기매입액 19,500원을 구한다. 상품재고가 감소한 500원까지 반영하면 매출원가는 20,000원이며, 매출총이익 5,000원을 더한 매출액은 2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매입액 계산: 매입채무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증가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감소한다. 기말매입채무가 기초보다 6,000 − 4,000 = 2,000원 증가했으므로, 당기매입액은 지급액보다 2,000원 많다. 따라서 **매입채무 증가액을 현금지급액에 가산**한다.
당기매입액은 17,500 + 2,000 = 19,500원이다.

2. 매출원가 계산: 기초상품재고와 당기매입액을 합한 금액은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이다. 여기서 **기말에 남아 있는 상품재고를 차감**하면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가 된다.
매출원가는 6,000 + 19,500 − 5,500 = 20,000원이다.

3. 매출액 계산: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매출액을 구하려면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을 가산**한다.
매출액은 20,000 + 5,000 = 25,000원이다.

따라서 20×1년 당기 매출액은 25,000원으로,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주)한국과 관련된 거래이다. 기말 수정분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8월 1일 건물을 1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현금 ₩2,400을 수취하면서 임대수익으로 기록하였다.
◯ 10월 1일 거래처에 현금 ₩10,000을 대여하고, 1년 후 원금과 이자(연 이자율 4%)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 11월 1일 보험료 2년분 ₩2,400을 현금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① 자산이 ₩2,100만큼 증가한다.
② 비용이 ₩200만큼 증가한다.
③ 수익이 ₩100만큼 증가한다.
④ 당기순이익이 ₩900만큼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말 수정으로 임대수익은 1,400원 감소하고 이자수익은 100원 증가하여, 수익은 총 1,300원 감소한다. 반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보험료를 자산으로 돌리면 비용이 2,200원 감소하므로, **당기순이익은 900원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2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수정분개의 영향은 수정 후 잔액 자체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금액에서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뜻한다.

① X: 자산은 **2,300원 증가**한다. 10월 1일 대여한 원금 10,000원에 대해 10~12월 3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는 $10{,}000 \times 4\% \times \frac{3}{12} = 100$원이다. 아직 받지 않았어도 당기에 발생한 이자이므로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을 각각 100원 인식한다. 11월 1일 지급한 24개월분 보험료 중 사용하지 않은 22개월분은 $2{,}400 \times \frac{22}{24} = 2{,}200$원으로, 비용에서 선급보험료라는 자산으로 돌린다. 따라서 자산 증가액은 100 + 2,200 = 2,300원이다. 임대료에 대한 수정은 수익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돌리는 것이므로 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X: 비용은 **2,200원 감소**한다. 11~12월에 사용한 보험료는 $2{,}400 \times \frac{2}{24} = 200$원이지만, 지급 당시 2,400원 전액을 비용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기말에는 보험료를 2,400 - 200 = 2,200원 줄여야 한다. 200원은 수정 후 당기 보험료이지 비용 증가액이 아니다.

③ X: 수익은 **1,300원 감소**한다. 8월 1일 받은 1년분 임대료 중 당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8~12월의 5개월이고, 나머지 7개월분은 다음 기의 수익이다. 이미 전액을 임대수익으로 기록했으므로 $2{,}400 \times \frac{7}{12} = 1{,}400$원을 임대수익에서 차감하고 선수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자수익 100원이 추가되더라도 전체 수익의 증감은 -1,400 + 100 = -1,300원이다.

④ O: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정분개로 수익은 1,300원 감소하지만 비용은 2,200원 감소하므로, **비용 감소액이 수익 감소액보다 900원 크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의 증감은 -1,300 + 2,200 = 9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900원 증가한다.

NoteBase

문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함으로써 개별기업의 재무제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회계기준으로 삼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과거 규정중심의 회계기준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변경되었다.

④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평가 적용이 확대되었다.

정답 2번

①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한다.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여 주므로 개별기업 재무제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NoteBase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 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회사(코넥스 상장·상장예정법인 제외), 일정한 금융회사 등**이다. 외부감사 대상이라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를 판단하는 원칙중심 기준**이다. 개별 거래의 처리방법을 상세히 열거하기보다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측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취득 당시 원가뿐 아니라 평가 시점의 경제적 가치도 재무제표에 더 폭넓게 반영한다.

문 16. (주)한국의 20×1년 매출액은 ₩3,000,000이고, 기초재고자산은 ₩100,000이었다. 20×1년 말 유동부채는 ₩100,000, 유동비율은 400%, 당좌비율은 100%이다. 또한,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이 36일이라면 매출총이익은? (단, 재고자산은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년은 360일로 계산한다)

① ₩0

② ₩500,000

③ ₩1,000,000

④ ₩2,0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 36일은 360일 동안 재고가 10회 회전한다는 뜻이므로, **평균재고자산에 10을 곱해 매출원가**를 구한다. 매출원가 2,000,000원을 매출액 3,000,000원에서 빼면 매출총이익은 1,000,000원이다.

계산 과정

1. 기말재고자산: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고, 당좌비율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유동부채가 100,000원이므로 기말 유동자산은 100,000 × 4 = 400,000원, 기말 당좌자산은 100,000 × 1 = 100,000원이다.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당좌자산**이므로 기말재고자산은 400,000 − 100,000 = 300,000원이다.

2. 평균재고자산: 연간 매출원가와 대응할 재고자산은 기말잔액만이 아니라 **기초와 기말 잔액의 평균**을 사용한다. 기초재고자산이 100,000원이므로 평균재고자산은 $\frac{100{,}000 + 300{,}000}{2}$ = 200,000원이다.

3.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평균처리기간은 재고가 판매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이다. 따라서 1년의 일수를 이 기간으로 나누면 연간 회전횟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 1년을 360일로 정했으므로 재고자산회전율은 $\frac{360}{36}$ = 10회이다.

4. 매출원가: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평균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은 원가로 측정되므로 회전율의 분자에는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평균재고자산 200,000원이 연간 10회 회전하므로 매출원가는 200,000 × 10 = 2,000,000원이다.

5.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3,000,000 − 2,000,000 = 1,000,000원이며,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7. (주)한국은 20×1년 중 (주)민국의 주식을 매매수수료 ₩1,000을 포함하여 총 ₩11,000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동 주식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12,000이었으며, 20×2년 중에 동 주식을 ₩11,500에 모두 처분하였을 경우, 동 금융자산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취득금액은 ₩10,000이다.

② 20×1년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평가이익은 ₩1,000이다.

③ 20×2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처분손실은 ₩500이다.

④ 20×2년 처분손익은 ₩0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주식은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할 때도 누적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년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처분손익은 0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에 직접 관련된 **매매수수료를 취득금액에 포함**한다. 주식대금은 11,000 − 1,000 = 10,000원이지만, 수수료 1,000원을 더한 최초 장부금액은 11,000원이다.

② X: 20×1년 말에는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12,000원으로 조정한다. 최초 장부금액 11,000원과의 차이인 12,000 − 11,000 = 1,0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평가이익**이다.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평가이익은 0원이다.

③ X: 20×2년 처분 시에는 직전 장부금액 12,000원에서 처분금액 11,500원으로 가치가 500원 하락하였다. 이 500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평가손실**이며,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처분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주식은 처분할 때도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20×1년 평가이익 1,000원에서 20×2년 평가손실 500원을 차감한 누적이익 500원도 당기손익으로 옮기지 않으므로, 20×2년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처분손익은 0원이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의 20×1년 기초재고자산은 ₩100,000, 당기매입액은 ₩200,000이다. (주)한국은 20×1년 12월 말 결산과정에서 재고자산 실사 결과 기말재고가 ₩110,00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다음의 사항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를 반영한 후 (주)한국의 20×1년 매출원가는?

◯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 ₩20,000은 20×1년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이며, 20×2년 1월 2일 도착 예정이다.
◯ 20×1년 12월 31일 현재 시용판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보낸 상품 ₩40,000(원가) 가운데 50%에 대하여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시하였다.
◯ 20×1년 12월 31일 현재 (주)민국에 담보로 제공한 상품 ₩50,000은 창고에 보관 중이며, 재고자산 실사 시 이를 포함하였다.

① ₩170,000
② ₩180,000
③ ₩190,000
④ ₩22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실사에서 빠진 시용판매 상품 중 **구매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20,000원**을 기말재고에 더한다. 수정된 기말재고는 130,000원이므로, 판매 가능한 상품원가 300,000원에서 이를 뺀 매출원가는 17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과 당기매입액을 합한 판매 가능한 상품원가에서 기말재고자산을 빼서 계산한다. 따라서 먼저 결산일 현재 회사에 귀속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실사 기말재고 110,000원을 조정한다.

운송 중인 매입상품: **도착지 인도조건**에서는 상품이 도착할 때 매입자에게 귀속된다. 20,000원은 20×1년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이고 20×2년 1월 2일 도착 예정이므로, 당기 말 재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사 기말재고에 더할 금액은 없다.

시용판매 상품: 고객이 시험 사용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판매이므로,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아직 회사의 재고이다. 보낸 상품 원가 40,000원 중 50%는 구매의사가 표시되어 판매되었고, 나머지 50%는 회사의 재고로 남는다. 따라서 실사에서 빠진 40,000 × 50% = 20,000원을 기말재고에 더한다.

담보제공 상품: 담보로 제공해도 상품 자체를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재고에 포함한다. 50,000원은 창고에 보관되어 **이미 실사 기말재고에 포함**되었으므로 추가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수정 기말재고: 110,000 + 20,000 = 130,000원이다. 운송 중인 매입상품은 가산하지 않고, 담보제공 상품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매출원가: 기초재고 100,000원과 당기매입액 200,000원을 합한 300,000원 중 기말에 남은 130,000원을 제외한다. 100,000 + 200,000 − 130,000 = 17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 기초 잔액은 ₩200,000이며,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은 ₩30,000이었다. 20×1년 중 발생한 다음 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은 ₩150,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당기순이익과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 당기 중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70,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 20×1년 말 매출채권 총액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액은 ₩250,000이다.
◯ 7월 1일 임대목적으로 ₩200,000의 건물을 취득하였다. 내용연수는 2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주)한국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결산일인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는 ₩250,000이다.

① 당기순이익: ₩80,000, 이익잉여금: ₩70,000
② 당기순이익: ₩90,000, 이익잉여금: ₩70,000
③ 당기순이익: ₩80,000, 이익잉여금: ₩110,000
④ 당기순이익: ₩90,000, 이익잉여금: ₩11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회수불능액을 차감한 손실충당금을 기말 필요액에 맞추려면 **대손상각비 120,000원**이 필요하고,
투자부동산에서는 **공정가치평가이익 50,000원**이 발생한다. 이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80,000원이며, 기초 이익잉여금 30,000원에 더하면 기말 이익잉여금은 11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손실충당금과 대손상각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매출채권 70,000원은 기존 손실충당금과 상계한다. 이때는 **새로운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을 함께 줄인다. 따라서 충당금 잔액은 200,000 − 70,000 = 130,000원이다. 기말 기대신용손실액 250,000원은 기말에 남겨 두어야 할 충당금이므로, 부족액인 250,000 − 130,000 = 120,000원을 대손상각비로 추가 인식한다.

2. 투자부동산 평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결산일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따라서 7월 1일 취득에 따른 반년분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는다. 취득원가 200,000원에서 기말 공정가치 250,000원으로 증가했으므로 평가이익은 250,000 − 200,000 = 50,000원이다.

3. 당기순이익: 위 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이익 150,000원에서 대손상각비를 차감하고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을 더한다. 당기순이익은 150,000 − 120,000 + 50,000 = 80,000원이다.

4. 기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이익이므로 기초 잔액에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배당 등 감소액을 차감한다. 이 문제에는 배당 등 다른 변동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기말 이익잉여금은 30,000 + 80,000 = 110,000원이다.

당기순이익 80,000원과 기말 이익잉여금 110,000원의 조합은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액면가 ₩1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8%, 이자지급일이 매년 12월 31일인 사채를 ₩9,503에 할인발행하였다. 이 사채를 20×2년 1월 1일에 ₩9,800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할 때, 사채상환손익은? (단,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은 10%이고,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사채상환손실 ₩18

② 사채상환손실 ₩147

③ 사채상환이익 ₩18

④ 사채상환이익 ₩147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할인발행 사채는 할인차금을 상각하면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1년 후 장부금액은 9,653원이며, 조기상환액 9,800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사채상환손실 147원**이 발생한다.

계산 과정

현금이자: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액면금액에 표시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1년 12월 31일에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10,000 × 8% = 800원이다.

이자비용: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기초 장부금액에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을 곱한다. 발행금액 9,503원이 최초 장부금액이므로, 20×1년 이자비용은 9,503 × 10% = 950.3원이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950원이다.

할인차금 상각과 장부금액: 이자비용 중 현금이자로 지급하지 않은 차액이 할인차금 상각액이다. 상각액은 950 − 800 = 150원이며, 할인발행 사채는 이 금액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따라서 20×1년 말 장부금액은 9,503 + 150 = 9,653원이다.

조기상환손익: 20×2년 1월 1일은 첫 이자지급일 직후이므로 추가로 경과한 이자 없이 1년 말 장부금액과 상환액을 비교한다. **상환액이 제거되는 부채의 장부금액보다 크면 손실**이다. 사채상환손실은 9,800 − 9,653 = 147원으로, ②의 사채상환손실 ₩147에 해당한다.

NoteBase